

MP3플레이어의 변신

최근 몇 년간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디지털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온 MP3플레이어. 이제 단순한 MP3플레이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졌을 만큼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컨버전스' 화 속에 업계는 휴대용 게임기, 포터블미디어플레이어(PM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으로 영역 확대를 시도하는 중이다.

이제는 콘텐츠 경쟁

MP3플레이어 업계가 변하고 있다. '탈 MP3P'와 멀티미디어기기 업체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MP3플레이어 시장을 선도해온 업체들은 MP3플레이어의 수익성 약화와 디지털기기의 '컨버전스' 화의 바람을 타고 휴대용 게임기, 포터블미디어플레이어(PM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으로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과 기능이 더해진 디지털기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MP3플레이어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아 온 레인콤이 대표적이다. 당장 8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와이브로 게임기 '아이리버 G10(가칭)'은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즐길 수 있는 신 개념의 3차원 게임기다. 이를 위해 레인콤은 지난 1월 10일 와이브로 단말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와이브로 인프라 장비 업체인 포스테이터와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CJ인터넷(넷마블)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이어 1월에는 NHN(한게임), 윈디소프트와 협약을 맺는 등 콘텐츠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레인콤 측은 "넷마블, 한게임 등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포털사뿐 아니라 모바일, 콘솔 게임 배포사들과도 협력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혀 게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양덕준 대표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MP3P 시장에서 점유율 싸움은 의미를 잃었다"며 "향후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에 맞는 기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인콤은 기존 MP3플레이어 부문 못지않게 신사업 부문에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아이오디오'를 생산하는 코원시스템은 지난해보다 더욱 PMP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며 2월에는 PMP A2에 연결하여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DMB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MP3플레이어 판매에 의존했던 엠피오도 최근 DMB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제는 멀티미디어기기에 어떠한 콘텐츠를 넣어 기기의 효용성을 늘릴 것인가가 경쟁의 핵심이 될 듯하다.

왜 변화하는가?

MP3플레이어 전문 업체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애플의 '아이팟' 등 거대기업 제품의 출현에 따라 MP3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체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능은 더욱 좋게, 디자인은 더욱 세련되게, 가격은 더욱 저렴하게 가는 것이 최근 MP3플레이어의 추세지만, 대기업이나 외국 거대기업에 중소·벤처업체들이 있는 그대로 맞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결국 벤처다운 '블루오션' 창출전략으로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신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에 사활을 건다

디지털멀티미디어기기는 패션휴대품으로서의 의미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의 키워드는 '소형화·패션화·명품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패션에 민감한 세대를 겨냥해 초소형·초슬림을 표방하며, 보다 작고 편리한 휴대성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소형화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판 승부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기기



레인콤

목걸이형이나 전면부에 버튼을 없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국내 MP3플레이어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레인콤은 최근 휴대형 와이브로 온라인 게임단말기인 아이리버 G10을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콘텐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U10, T10 등 주력 MP3플레이어 제품과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기 Xbox360을 연결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H10을 출시할 예정이다.



엠피오

국내 MP3플레이어 제조사 중 유일하게 자체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엠피오는 그동안 권위 있는 국제행사에서 디자인상을 잇달아 휩쓸며 MP3플레이어의 디자인 명가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IF 디자인어워드'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그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 2월에는 키마우스와 푸우 등 월트디즈니의 인기 캐릭터를 적용한 디즈니 MP3플레이어를 출시한다.



코원시스템

아이오디오로 알려진 코원은 최근 세계최소 0.85인치 초미니 HDD형 MP3 iAUDIO 6를 포함한 하드디스크형 제품 2종과 차세대 와이드 PMP인 COWON A2 등을 선보이며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1월 중 COWON A2에 연결하여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DMB 모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현원

카세트테이프 타입의 MP3플레이어와 교통카드 내장 MP3플레이어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기기 생산업체 현원 모비블루. 올 초 세계적 수준의 저 전력 회로설계기술을 통해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150시간 연속재생이 가능한 MP3플레이어 DAH-1900을 선보인다.



콘텐츠 업체와 MP3플레이어 업체간 협력체계 본격화될 터

김동환(레인콤 홍보과장)

현 MP3플레이어 시장의 트렌드는 플래시 4GB급, 30GB 이상 HDD의 고용량 제품 출시와 전반적인 가격인하 추세로 인한 저가제품의 등장으로 축약된다. 그리고 음악 외에 이미지 재생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e-북이나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큰 화면을 탑재한 제품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

무료 콘텐츠시대가 사라지고 대신 유료 콘텐츠가 자리잡아감에 따라 풍부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제품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유료 콘텐츠의 경우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기기들이 콘텐츠 지원을 위해 다양한 DRM을 탑재하게 되고 DRM 지정 음원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아 들을 수 있게 된다. 즉, 콘텐츠 업체들과 기기업체 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업체는 유료콘텐츠 판매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기기업체는 기기 사용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앞으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기기 시장판도는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접근성이 용이한 양질의 콘텐츠가 제품 판매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